

시론



김영식

남부대 교수·웃음명사전문가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사라졌던 봄이벤트, 어묵 등을 파는 포장마차가 이제는 제법 곳곳에 자리를 잡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잠시 쉬어 가게 한다. 필자가 가끔 길을 지나다가 차를 세우고 인 손을 녹이며 어묵 국물에 허기진 배를 따뜻하게 채울 때 확장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되살아 나곤한다. 예전에는 포장마차에 남쪽불이라고 하는 호롱불 같은 가스불로 근근이 어둠을 밝히던 기억이 난다. 찬 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고 연말이 되면 올 한해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고 위안을 해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게 된다. 밀레니엄 시대 이후 인간의 행복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지기도 했지만, 자신의 과도한 행복 추구가 인하여 타인의 행복이 침해 받는다는 생각이 필요해 보인다.

광주매일신문에 기고한 이전 시론에서는 영구적 위기의 시대에 행

가스라이팅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복합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연속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유명 사진출판사인 메리엄 웹스터(Merriam-Webster)가 뽑은 2022년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단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자주 부정함으로써 미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게 됐다. 또 국내에서는 가수이자, 예능프로그램에 출연중인 이승기씨가 후크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대표로부터 18년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사회 전반에 많은 가스라이팅 사례들이 알려지게 됐다.

가스라이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심하게 오도하는 행위나 관행"을 뜻한다. 이 행동은 즉석에서 하는 거짓말보다 더 복잡하고 사악한 면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정신적인 학대를 가하는 매우 나쁜 행동이다. 흔히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처럼 잘못된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이 계속해서 노출된다 보면 진짜처럼 오도되는 경우와 비슷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확대다.

미국에서 이 용어가 올해 검색량이 무려 1천740%나 증가를 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정서적으로 위험한 상황인가 알 수 있는 자료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 관계, 직장의 상하 관계, 친구 사이 등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니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웃음치료를 받으러 오는 대상자 중에 아주 사소한 언어적인 공격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다 보니 자기자신에 대해 부정확한 인식을 갖게 되고, 공황 장애처럼 된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만약에 자기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가해자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직장 동료나 친구 또 다른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봐야 한다. 자신의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며, 자신이 행동이 잘못 된 것처럼 느끼면서 죄악시되는 상황을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으로 털어놓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진행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 조직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고 그 단계를 모임에서 탈퇴를 하는 것이다. 그런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자신의 주변을 잘 정리해야 새로운 새해를 맞이 할 수 있다. 배주는 5번 이상 죽어야 기사가 된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는가? 붉은 대추 한 알에도 수 많은 천둥 번개와 소낙비가 담겨 있다. 올 한해도 웃으면서 잘 넘겨 보자.

기고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장

완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나 물으면 대다수가 해상왕 장보고, 전복, 다시마, 매생이 등을 이야기한다. 모든 답의 공통점은 바로 바다와의 연결고리다. 완도는 바다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경바다 수도이며, 제1의 해양수산 세력과 섬으로 구성된 전무후무한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사실 바다 환경은 다 다르다. 동해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으로 깊은 수심이 특징이며 서해는 세계 5대 갯벌로 세계 최고 조석간만의 차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딱 중간 부분에 위치한 완도는 서해와 남해의 중간적 특성을 전부 갖고 있다. 섬과 갯벌, 해조류 숲, 리아스식 해안이 모두 있고, 265개의 섬과 백만석 해저지반, 그리고 전국 대비 전복 73%, 다시마 71%, 매생이 69%, 미역 38%, 광어 30% 등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다.

완도 주변 해역의 생물종 다양성은 2천200여종으로 압만 서식처, 해상국립공원 및 갯벌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천혜의 바다 환경을 보유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양식을 대표하는 선두주자다. 완도해역에서 첫 시험 양식에 성공한 미역, 다시마, 톳, 청각과 국내 최양 양식기술로 성공시킨 전복을 손꼽을 수 있다. 완도 지주식 김양식 어업은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2017년 지정됐고 조선어업조합요람(1942년)에 따르면 조약도 정시원씨가 김을 최초 양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다. 이처럼 완도는 해양·수산자원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게 없을 정도다.

대규모 국제사업인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1천245억원을 들여 총 4만2천500㎡ 부지에 전시관, 체험관, 교육관 등이 모두 담긴 복합적인 해양문화시설이다. 단순 전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양문화, 인물, 산업, 생물, 영토 등 바다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바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물려주는 장이 될 것이다.

설립 부지는 완도군 완도를 장좌리 251의 4필지에 해변가에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곳이며 주변에는 정해진 유적, 장보고기념관, 장보고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또 반경 10km 내에는 국립난대수목원, 해양치유센터, 신지명사심리 해수욕장, 완도타워, 고급 이층무궁 유적지, 완도항역사터미널이 위치해 향후 해양관광 클러스터까지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집약돼 있다.

게다가 현재 공사 중인 광주-완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1시간 이내로 이동 시간이 단축돼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완도에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이 건립되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완도군이 추진한 박물관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천34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14억원, 취업 유발효과 1천여명 정도다. 덧붙여 1조원 규모 해양치유산업, 2천억원 규모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과 연계시 더욱 큰 일자리,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이후 초·중·고교생, 성인, 기업단체 등 계층별, 여름·겨울 해양수산역사캠프, 봄·가을 문화제 등 다양한 계절별 체험·관광 연계형 상품을 개발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더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해양치유·산림치유가 연계된 웰니스 상품을 개발해 박물관-신지 해양치유센터, 약산 해양치유의 숲 연계형 웰니스 프로그램 등도 좋은 관광 아이템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전복·다시마 축제, 정산도 슬로걷기 축제 등과 박물관을 연계한 지역 상생형 특화상품 개발, 박물관과 기존 자연 연계형 투어버스를 운영해 관광해설까지 덧붙인다면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 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육성과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엔 선정된 건립 대상지를 포함해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심의를 거친 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도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통과돼야만 2024년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2028년 준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내실 있게 차근차근 대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반드시 내년에는 에타를 통과시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이 바다를 향해 꿈을 꾸게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무대가 되길 바란다. 해양부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상징하며 바다를 호령했던 불세출 장보고와 같은 인물이 배출되는 꿈의 양성소가 되길 기대한다. 이제 완도하면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이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社說 새해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더 꼼꼼하게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1일 시행된다. 본인 주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현금을 기부하고, 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하는 경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 보호, 주민의 문화예술보전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복리 증진 사업에 쓰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답례품 선정을 마쳤다. 광주는 김치, 진다리보, 농축산 꾸러미, 우리밀 가공품, 웰빙간식 김부각, 알차류, 된장간장세트, 공예품, 쌀, 상생카드 등 10개 품목으로 구성했다. 전남은 농수축산물과 관광상품 등 118개에 이른다. 남도장터상품권,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여수갯김치, 나주배, 영광굴비 등 22개 시군 특산품을 시군 당 5개 품목씩 선정해 선택 폭을 넓혔다. 시·도는 신속하게 공급업체를 지정하고 연내 고향사랑e음에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환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국 지자체가 핵심인 답례품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남의 기부금을 최소 537억, 최대 2천78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정 바다와 너른 들녘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통해 경쟁력 또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부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경기(15.2%)와 서울(1.7%)이 1위, 2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8.2%, 광주는 2.4%에 머물렀다. 기부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다양하고 매력있는 답례품도 추가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특히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부금을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데 유념해야 한다.

타 지역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데다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돌파구일 수 있다. 내일을 기약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들이 양금덕 할머니에 드린 '인권상'

대한민국 인권상이 보류된 양금덕 할머니가 '우리들의 인권상'을 수상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광주시민들이 드린 이 상은 1992년 소송을 시작하며 반인륜 범죄를 견제하기 위해 30년간 가시발길을 달려온 노고를 치하하며 정부마저 등을 돌리고 수많은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난 할머니를 '양관순'으로 기억한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앞서 양 할머니는 지난달 말 국가인권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돼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최민환장 모란장 서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최종 심의 과정에 외교부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끝마로 강기정 시장은 임정문을 내고 "인권상은 자랑스러운 광주시민인 양금덕 할머니와 5월 정신에 딱 맞는 의미있는 역사로 기억될 수 있는 상"이라면서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자로부터 명예회복을 위해 긴 세월 싸워왔던 할머니의 최소한의 존엄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통해 "평생을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롭고 처절하게 일본과 싸워온 양 할머니의 아픔을 살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권상 서훈은 광주시민의 염원이다. 우리나라의 자존심이다. 국가인권위 추천을 거부한 것도 그렇고, '사전협의'를 구실 삼은 외교부 태도를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평생을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 온 할머니를 위로하고 그 뜻을 기리는 게 너무 당연한 처사다. 해서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해 눈치를 보는 굴종적 자세라는 비판이 거센 것 아닌가.

양 할머니는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 주저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씩씩하게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정의 실현을 위해 걸어온 발걸음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늦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해야 한다. 더는 외면하지 말라.

그래픽 뉴스 한국, OECD 국가 중 GDP 대비 법인세 비율 6위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정부 650-2030	사건진보 650-2080	광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독자투고

겨울철 한파 대응 방법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되다 보면 한파나 대설이 발생한다. 한파는 겨울철에 급작스럽게 기온이 하강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한파 현상은 농어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파가 오게 되면 저체온증, 동상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이에 한파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겨울철 한파가 발생하기 전, 한파

를 대비하기 위해 가정 내 보일러, 배관, 난방기구 등은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고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동파 방지를 위해 가정에 계량기에 수건이나, 담요 등으로 미리 보온 조치를 해야 한다. 미리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한파 예보에 맞춰 동파사고 등 단수에 대비해야 한다.

혹시나 모를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비상식량,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무리한 신체 활동이나 장시간 야외활동은 자제



하고, 부득이하게 밖에서 활동해야 할 상황이면 주기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한파 발생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노약자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야외활동 후 심한 한기, 기어상심,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특히 병관길 낙상사고가 가장 많

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낮고 미끄럼이 방지된 신발을 신는 등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상에 걸렸을 경우에는 비비지 말고 따뜻한 물에 30분 가량 담고 온도를 유지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또한, 도로가 얼 수 있으니 차량에 스노체인 등 월동용품을 상시적으로 준비해놓고 부동역 등 자동차 점검을 미리 하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사고 대비와 예방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안전으로 이어진 만큼, 잘 대비해 안전한 겨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한다.

(김재혁·여수소방서 서서119안전센터)